개항이후 대한제국 성립 이전 외교관 복식 연구*

이 경 미**

1. 머리말
2. 개항이후 갑신의제개혁(1884년) 이후 수신사, 보병사의 복식
3. 갑신의제개혁(1884년) 이후 갑오의제개혁(1894년) 이후 외교관 복식
4. 갑오의제개혁(1894년) 이후 대한제국 성립(1897년) 이후 외교관 복식
5. 맺음말

1. 머리말

외부의 자극에 의해 생활문화가 변화될 경우 각국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여야 하는 대상은 내부와 외부의 경계를 넘나드는 사람들은이다. 근대 국제관계에서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해외에 파견된 외교관들이이다.1) 외교관들은 공식적으로 국왕 혹은 대통령을 알현하여 국서를 봉정하는 예식을 행하고, 외국 정부가 주도하는 군대식 연회에 참석하여야 했다. 국기란 자국의 국왕이 상대편의 국왕에게 보내는 문서양식을 말하는데,2) 당시 서양과 서양화된 일본에서 일반적으로

* 본 논문은 2013년 4월 20일 '2013년도 한국의류학회 총계학술대회'에서 구두로 발표되었고, 초록은 학술대회 자료집 158면에 수록되었다.
** 한경대학교 의류산업학과 조교수.
1) 본 연구에서는 개항이후 조선정부로부터 해외로 파견된 수신사, 보병사, 전권대신, 특명전권대신, 특명전권공사 등의 시절을 통칭하기 위한 용어로 '외교관'을 사용하였다.
2) 개항이후 새로운 외교의례에서 생긴 전 서양에 대해서는 박성진, 2000 「甲午改革前後 鄭書의 様式과 特徵」、「蔭書閣」3, 139-165면을 참고할 수 있다.

- 129 -
국서전달의 국왕 알현식에서는 대례복을, 연회에서는 소례복을 착용하였다. 서양 여러 나라들과 일본의 대례복은 자국의 상징 문양을 금사로 자수한 연미복 형태의 예복(court dress 혹은 court costume)이었고, 소례복은 연미복(swallowtail coat) 혹은 프로코트(froc coat)의 서양 남성 예복이었다.

서양과 서양화된 일본에 개항한 이후 조선 정부에서는 내한한 외국 사절, 상주 외교관들의 새로운 외교의례에 대응하고, 조선 외교관의 해외 외교의례에 대비하기 위해 전통적인 외국체계를 변화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였다. 조선정부는 개항 8년 후인 1884년부터 복식제도 개혁을 진행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의제개혁 이전의 외교관들은 개혁의 체계가 역행을 하였고 이후의 외교관들은 개혁의 결과를 해외에서 실험해 볼 수 있는 대상이 되었다.

지금까지 복식사 분야에서 개항이후 복식에 대한 연구는 의제개혁의 결과 국내의 복식 변화를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져 왔다. 최근 일본 파견 수신사들의 경험이 복식관의 변화를 고찰한 연구도 이루어졌지만, 선행 연구에서는 국서 봉정시 홍단령 착용에 대한 내용이 누락되어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또한 보병사의 복식 자료와 의제개혁 이후 파견된 외교관 복식 자료까지 추가하여 개항이후 해외에 파견된 외교관 복식을 다시 한 번 정리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조선정부가 파견한 외교관이 현지에서 착용한 복식과 그에 대한 해외의 시각은 국내 복식제도 변화 과정과 함께 종합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개항이후 조선에서 이루어진 복식제도 개혁 과정은 외교관들이 현지 복식체계에 대응하는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도록 할 것이다. 주된 연구방법은 문헌 연구로, 개항이후 대한제국 정립 전까지 외교관들이 남긴 자료 중 기행문, 일기 등에서 복식 자료를 수집하고, 사전 자료를

3) 대례복, 소례복이라는 용어는 근대 일본에서 만들어진 용어일 가능성이 크다. 조선에서는 개념과 함께 용어를 도입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일본에서 대례복을 처음 제정한 시기는 1872년(明治5)으로 서구식 연미복 형태였다.

4) 미국의 경우에는 연미복에 혼장을 매치하는 것으로 대례복을 대신하였다. 이경미, 2011『대한제국기 외국공사 접견례의 복식 고증에 관한 연구』『한국문화』56, 177~177.

5) 이경미, 2009『갑신의제개혁(1884년) 이전 일본 파견 수신사, 조사시절단의 복식과 복식관』『한국의류학회지』33권 1호, 45-54쪽.
보완하여 살펴보았다. 또한 현재에서 발견된 신문, 잡지의 기사와 삼화도 조사하였는데 서양인의 눈을 통해 서술된 자료는 부족한 사료를 보충하는데 도움이 되지만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서술되지 않은 부분도 있다는 것을 전제하였다. 분석된 복식 자료로는 수신사, 보병사의 자료, 상주 외교관으로 파견되었던 미국 공사 박정양, 이범진, 일본주재 니더스바이 테이의 자료, 러시아 파견 특명정권 공사 민영환의 자료이다. 본 연구에서는 특히 복식사 분야에서 구슬로만 전해지고 있는 보병사의 약북 구입 자료를 발굴할 수 있었다.

연구의 결과는 첫째, 산재되어 있던 외교관 복식 자료들을 정리함으로써 각 시기에 맞는 외교관 복식을 고증하는데 도움이 되고, 둘째, 개항이후 조선에서 이루어지는 복식제도 개혁과정을 새로운 외교상황에 대응하는 과정으로 재인식 하도록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2. 개항이후 감신의제개혁(1884년) 이전 수신사, 보병사의 복식

개항 이후 복식제도 개혁이 이루어지기 전 해외에 파견된 외교관으로는 일본에 파견된 수신사와 미국에 파견된 보병사가 있다. 새로운 세계에서 통용되고 있는 예법과 복식 체계에 대해 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신사는 일본에서, 보병사는 미국에서 전통 고대의 차림으로 외교활동을 하였다. 이들은 일본과 미국에서 전통적인 모습으로 행동하였고 현지에서 호기심어린 타자와 사인에 노출되는 것을 경험하였다. 이들은 귀국 후 정부의 복식정책 변화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외국에서의 경험으로 인해 복식관의 변화가 있던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자료를 통해 개항 당시 조선의 일반적인 복식관과 타자의 시선에서 주목되는 복식 향토를 확인할 수 있다.

1) 일본 파견 수신사의 복식

1876년 조일수호조규(강화도조약) 체결 이후 조선은 일본과의 새로운 외교를
위해 1차 수신사로 김기수를 파견하였다. 당시 일본은 이미 서양화된 복식을 착용하고 있었고 서양식 예법으로 천황에 대한 절건례와 연회를 행하고 있었다. 변화된 일본에서의 여정동안 김기수 일행은 공식적인 행사에서는 조선의 관복을 착용하고, 일상적인 생활은 도포, 창밖의와 같은 편복을 착용하였다.6) 그런데, 천황 절건례를 앞두고 어떤 복식을 착용하고 어떤 방식의 의례를 따르 것인지는 의관과 행례가 이미 완전히 서양식으로 변화된 일본 정부에서도, 전통적인 방식에서 변화가 없는 조선 사절에게도 민감한 문제였다. 김기수는 천황을 알현하기 직전 외무대장에게 조선에서 왕을 알현하는 과정에서 착용하는 복식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우리나라의 법은 큰 뒷품(관적 일명)이 있으면 흑면을 입고 대궐 안의 곳곳 밖에서 유행하고, 만약 임시하사는 명령이 있으면 기치면을 입고 대궐에 임직합니다. 궁전의 좌항이 남항이면 행정에 이르러 이곳 끝에서 동향하여 유배를 행하고 궁전의 치무의 들려가서 혹은 백곳 앞에 얹드리기도 하고, 혹은 여행의 조금 멀 곳에 얹드리기도 합니다. 몸의 앞뒤가 있어서 반드시 일어나서 대답하고 물려가다고 하시면 물려봐는데, 물려봐 때에는 전의 유배한 곳에 가서 또 고배를 행하고 나오게 됩니다. 만약 명령을 받든지 다른 일로 나가고 들어올 때는 다만 기치면만 입고 임직 문 밖에서 유행만 하고 임직하는 것은 전의 임직한 일로 간주합니다.7)

이와 같은 조선의 행례 방식을 주장한 김기수가 실제로 천황 절건례 때 행한 의례의 구체적인 내용은『日東紀遊』에는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다. 그 자세한 내용은 수행원으로 일행에 참가하였던 安光默의『淵儀紀行』五月 初十日조에 기록되어 있다. 이를 바탕으로 재구성해 보면 김기수는 천황 절건례에서 와서 인용한 조선의 전통적인 의례를 그대로 적용하였다.8) 이때 일본의 천황은

6) 위의 논문, 47면.
8) 일본 외관 수신사의 복식에 대해 이령이, 앞의 논문, 47면에 김기수가 천황 절건례 때
断이한 상태로 모자를 쓰지 않고 혹색에 문장가 놓인 옷을 입고 선 채로 김기수를 맞이하였고, 참석한 일본 관원들은 서구식 대레복을 착용하였다. 조선의 수신사는 통신사가 경합되지 못한 전황 점검을 처음 행함에 있어서 이미 서양화된 문양과 희박함으로 변형된 일본에서 전통적인 방식으로 대응하였다. 수신사 김기수는 일본 전황을 점검하는 상황에서 숭단을 착용하여 이동하고 점검식장에서는 숭단을 착용하였다. 1880년 2차 수신사로 파견된 김홍집 역시 조선의 사모와 달력이 착용한 사절을 남기고 있다. 김홍집의 수신사 복장에선 일본 전황을 만났을 때 착용한 복식이 구체적임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조선에서 특별한 의례개혁이 없었기 때문에 김기수와 같은 방식으로 착용하였음을 것으로 생각된다. 수신사 김홍집 일행의 체색 사진이 러시아 페데르부르크 소재 러시아지리협회(Russian Geographical Society)에 소장되어 있는데 최근 공개되었다. 사진들 중 김홍집의 사진이 한국사진작가에서 공개되었던 〈그림 1〉과 같은 사진으로 보이고, 나머지 인물들의 양만자 배경과 분위기가 김홍집의 사진과 같기 때문에 당시에 촬영된 사진으로 파악된다.

이들의 사진을 크게 분류해 보면 〈표 1〉과 같이 크게 사모, 달력의 관복을 착용한 관원들, 전복을 착용한 관원들, 구군복을 착용한 관원들의 사진으로 나눌 수 있다. 그 중 신원이 확인된 인물이 8명, 미상인 인물이 7명으로 각 인물별 복식 차이에 대해서는 더욱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관복을 착용한 인물 중 수신사 김홍집, 열전한학당상 김용숙, 당상관 이종무의

홍단령으로 갈아입은 부분이 누락되어 있다. 김기수가 전황 점검을 때 행한 의례의 구체적인 내용은 안광목, 『김홍집행』(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 도서번호 봉구4280-2), 五月初十日에 기록되어 있고 이에 대해 이정화, 2011 『제1차 수신사 김기수가 경험한 근대 일본의 외교의해와 연회』, 『朝鮮時代史學報』59, 173-205면에서 자세히 고찰되었다.

9) 안광목, 위의 책, 五月初十日 ; 이정화, 위의 논문, 188면.
10) 백현수 『무역사』 제2권 『무역사』(아인회, 위의 논문, 186면에서 제인용).
12) 한국사진사연구소 발행, 1998 『한국사진작가사전 도록』, 도서출판 연우, 37면.
단령에는 생활이 수놓아져 있고, 서기 이조면, 상판사 김윤선의 단령에는 단락이 수놓아져 있다. 조선 후기 단령의 색은 아청색을 흑색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13) 채색된 색으로 파악할 때 이들의 단령은 흑단령으로 볼 수 있다. 편복을 착용한 인물들은 도포와 같이 소매가 넓은 포, 두루마기와 같이 소매가 좁은 포를 정자관, 갖 등의 편복관과 함께 착용하였다.

![그림 1] 수신사 김홍집 시진

### 표 1 수신사 김홍집 일행의 조상 사진

<table>
<thead>
<tr>
<th>구분</th>
<th>복식 착장 사진</th>
</tr>
</thead>
<tbody>
<tr>
<td>관복 착용</td>
<td></td>
</tr>
<tr>
<td>수신사 김홍집</td>
<td>별관한학당상 김윤선</td>
</tr>
<tr>
<td>서기 이조면</td>
<td>상판사 김윤선</td>
</tr>
<tr>
<td>편복 착용</td>
<td></td>
</tr>
<tr>
<td>서기 강위</td>
<td>군관 순응렬</td>
</tr>
<tr>
<td>상판사 별주기</td>
<td>미상 2</td>
</tr>
<tr>
<td>구균복 착용</td>
<td></td>
</tr>
<tr>
<td>미상 4</td>
<td>미상 5</td>
</tr>
</tbody>
</table>

13) 이은주. 2005 『조선시대 백관의 시복과 상복제도 변천』.『복식』 55권 6호, 48면.
한편, 1882년 일본에 특명전권대신 경 수신사로 파견된 박영효의 복식에 대해 최근의 연구에서 자세히 분석된 바가 있지만 박영효가 근대 복식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4) 박영효는 일본에 머무르는 동안인 11월 3일 일본 청황의 태평단(생일) 의례에 대례복을, 외무정 자택의 전람에 소례복을 입고 참석하라는 초대장을 받았다. 아직 조선에서 데려부와 소례복에 대한 규정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지만 박영효는 이를 착용하겠다는 답을 한 뒤 참석하였다. 대례복, 소례복에 대한 자세한 언급과 대응은 이전 수신사들과 차이가 나는 행동이었다. 구체적인 자료로 남아 있는지 않지만 그가 착용한 대례복과 소례복은 백화상 조선의 전통적인 복식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일본에서 그는 <그림 2>15)와 같이 단발 양장한 시사를 낭겼다. 시진에서 확인되는 복식은 당시 서양 남성의 평상복에 해당하는 색 코트(sack coat)로, 라벨이 매우 짧고 단추를 하나만 채우는 형태이다. 이 시진을 중심으로 생각할 때 현지에서 즉각적으로 구입해서 착용할 수 있는 서양식 소례복을 착용하였을 가능성이 역시 있다. 이에 대해서는 자료가 더 발굴되어야 규명될 것으로 생각된다.

2) 미국 파견 보병사의 복식

조선은 1882년에 미국과 통상조약을 맺었고, 1883년 미국에서 공사가 내 조항을 담당하는 의미로 보병사를 파견하였다.16) 보병사 일행은 전권대신 경 특명 전권공사 민영익, 부대신 홍영식, 중사관 서광범, 외무정관관 및 고문 미국인 로웰(Percival Lowell), 수형원 유태준, 최정석, 변수, 고영철, 현종학, 중국인 통역관 윗록당의 10명으로 구성되었고, 여기에 로웰의 개인비서로 영어를 잘 하는

14) 박영효의 단발 양장 시잔에 관하여는 이정미, 2011 『근대화의 관문 양복 착용의 선구자』 『한국학 그림과 만나다』 (경문 김동춘 외 자음), 태학사. 475-482면에서 자세히 다루었다. 15) 한국사진사연구소 발행, 1998 『한국사진사사전 도록』, 도서출판 연우, 40면. 16) 『고종실록』, 병20, 고종20년 6월 5일 병표.
일본인 미야오카 츠네지로가 비공식 수용위로 동행하였다. 이들이 미국에 도착한 후 촬영된 사진으로 〈그림 3〉은 보병사에 참가한 모든 사람들이 함께 촬영한 것이다. 앞줄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왼쪽부터 로웰, 홍영식, 민영식, 서광범, 중국인 오예당이고, 뒷줄에 서 있는 사람들은 왼쪽부터 현홍배, 일본인 미야오카 츠네지로, 유길준, 최정식, 고영철, 변수이다. 여행 중인 이들을 촬영한 이 사진에서 정자파를 쓴 유길준의 포는 정확하지 않지만 그 외 조선의 인물들은 것을 쓴 쾌호복에 맞춤을 입고 옷도를 두르고 있다. 외국인인 앞줄의 로웰, 뒷줄의 미야오카 츠네지로는 양복을 착용하고 있고, 중국인 오예당은 청나라 복식을 착용하고 있다. 보병사 일행의 옷차림은 미국 내에서 화재를 불러일으키면서 기사화되었다. 대표적인 기사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들이 머리에 쓴 것은 비버(beaver)와 같은 동물이거나, 헤이커 교도의 모자나 비버 형태가 결합된 것이었다. 고관의 경우에는 흥미로운 짙은 주광을 띠어 전체적으로 매우 섬세하고 투명한 망을 이루고 있다. 지위가 낮은 사람들은 폭대기를 착용할 수만이라도 만들어진 것을 쓴다. 낮은 계급은 모두 맨발로 착용되는 것과 같이 모자의 제절에 따라 계급 차가 보였다. 방에서

17) 金源模, 1985『朝鮮報聘使的美國使行(1883)研究(上)』, 『東方學志』49, 53-54쪽.
19) 비버는 비버의 털이나 이와 비슷한 직물로 만든 편평하고 닭근 모양의 모자를 의미한다(a flat, round hat made of beaver fur or a similar fabric), http://dictionary.reference.com/browse/beaver?s=t (검색일: 2012. 12. 26.)
주로 쓰는 비격식의 쓰개는 캐리카트와 같이 생겼는데 제질은 외출용 모자와 동일하였으나, 그들 바라는 일본의 20년 전 스타일과 같이 묻어서 올렸는데, 다만 점은 그들어 머리를 감지 않았으며 상투가 전체뿐이 약 3인치 정도로 모자 폭대기의 담헌 부분에 서 있다는 점이다. 얼굴 모양은 중국 또는 일본과 약간 닫아 있지만, 어느 족과도 현저히 달랐다. 머리결은 길고 수성었으나, 턱수염은 대부분 없었으며, 코수염과 구성나무는 드문드문 있는 경우가 많았다. 얼굴의 럼족에는 길이가 다른 호박구슬을 펼킨 줄이 달려 있는데, 수행원의 것들은 머 아래에서 만났으나, 높은 직위의 고관들의 것은 허리까지 내려왔다. 호텔에서 본 그들의 의복은 매우 정교한 페턴의 원 비단으로 만들어졌으며 상의는 폭은 자루와 같이 생겼다. 헤들링한 바지는 꼬리리에 서 묻어 있고, 다리는 향전으로 감싸져 있었다. 신발은 외양이 중국의 것과 약간 비슷하였다. 그들의 의복은 역시 호텔에서 착용하는 옷과 동일하였는데, 다른 점은 헌병하고 긴 포를 덧입는 것이다. 포는 채소여야 약간 색이고 정교한 페턴으로 만들었다. 포에는 (몰판과) 같은 색의 소매가 달리지 않어서 초록색과 붉은색의 소매가 접은 상의 위에서 도드라진 효과를 가져왔다. 옷의 색은 어떠한 사회적 지위도 나타내지 않았다. 계급은 모자에서 나타났다. 이 포는 공식적인 업무가 행해지거나 방문객이 있는 경우 모두 공사와 수행원이 착용하여야만했다. 20)

기사에서 보병사 일행의 외관에서 주목한 것은 첫째, 상투와 것이다. 이들은 상투의 모양을 통해 조선의 머리모양이 중국 및 일본과 구별되는 것을 시술하였고, 것은 모양과 재료에 주목하였다. 것은 모양으로는 비버나 �chw에 교도의 모자 형태와 비교하였고, 재질에 대해서는 벨벳, 대나무, 명주실의 사용에 따른 계급차를 자세히 관찰하여 서술하고 있다. 둘째, 옷의 형태와 색이다. 이들은 정교한 페턴으로 만들어진 지고리, 바지, 행전과 함께 겉옷으로 입는 포가 길고 헌병하다는 것을 자세히 보았다. 또한 포의 다양한 색에 주목하였는데 특히 소매의 색이 몸관의 검은색과 다르다는 점을 서술하고 있다. 이상의 묘사는 〈그림 3〉에서 볼 수 있는 차림으로 생각된다. 머리에는 것을 쓴고 바지, 지고리를 입고 그 위에 짧은 치마를 짜다니 두루마기에 전복을 착용한 차림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보병사 일행은 공식적인 행사로 대통령을 알현하고 고종의 국사를 전달하였 다. 이 때 보병사 일행의 복식은 묘사한 기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장이후 대한제국 성립 이전 외교관 복식 연구-137
조선인들은 대통령 알현을 위해 특별히 제작된 풍성한 궁정 예복을 입고 있었다. 알현 중 가장 위엄 있는 민영익은 다리까지 내려오는 매우 풍성한 자두색 비단으로 만든 단령을 입고 있었다. 허리에는 금으로 만든 사각형 장식이 부착된 각대를 차고 있었다. 가슴에는 홍미로운 형태의 다양한 문양들로 화려하게 수놓아진 홍배가 있었다. 가운데에는 두 마리의 학이 정교하게 수놓혀져 있었고, 머리에는 원기둥 모양의 사모를 쓴 것인데, 그 모자는 말종과 대나무로 만들어진 것이다. 홍영식 역시 긴 자두색의 풍성한 비단 단령을 입었는데 홍배의 자수가 그려 정교하지 않고 학이 한 마리만 세겨져 있다는 점에서 그의 상관과 구별되었다. 비서와 다른 수행원들은 다 양한 색의 포를 입었고, 높은 모자 부분과 넓은 씬을 가진 것을 쓴 것이다. 21)

위의 기사를 통해서 보빙사 알현이 대통령을 알현할 당시의 차림을 유추해 보면 다음과 같다. 전권대신 민영익과 부대신 홍영식은 단령을 착용하였다. 민영익의 단령에는 당상관의 장학홍배가, 홍영식의 단령에는 당하관의 단학홍배가 부착되어 있었다. 이들에 착용한 단령의 색은 기사에서 plum-colored로 표현되었는데 이는 자두색으로, 붉은 자주색 계통이다. 묶어진 색과 평배부착을 고려해 볼 때 자격단행일 가능성도 있고 수신사의 경우에 비추어 생각해 볼 때 홍단행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단정할 수는 없다. 단령의 색에 대해서는 자료를 보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어쨌든 대통령을 알현할 때 보빙사들은 홍배가 달린 단령을 착용하고 조선의 전통방식으로 견을 하였고 이 장면이 신문에 삼화로 실렸다. 〈그림 4〉 22)는 프랭

22) 서문당 발행, 1987 『사진으로 보는 독립운동』, 삼광인쇄사, 23면.
크 레슬리스 일러스트레이티드 뉴스페이퍼(Frank Leslie’s Illustrated Newspaper)에 실린 삽화로 뉴욕타임즈에 ‘그들의 절은 대통령을 향해 절먼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비스듬하게 하는 조선식 방식이었다.’라고 기술되었던 전통의 예범에 따른 것이었다. 23) 절을 한 후에 사절들은 관직 순대로 소개를 받아 대통령은 그들에게 인사하고 각자의 약수를 하였다. 24) 그림 5)는 문밖에서 절을 마친 후 점검실로 들어간 보병사 일행과 아더 대통령이 약수를 나누는 장면이다. 점검실 밖에 것을 쓰는 일이 없어 절하고 있는 모습도 희미하게 그려져 있다. 일행 중 단행을 착용하지 못하는 수행원들은 것을 쓰고 착수의에 전복을 착용한 것으로, 위의 기사에서 ‘다양한 색깔의 포를 입었고, 높은 모자부분과 넓은 쐐기를 가진 모자를 쓰고 있었다’고 묘사한 것과 일치한다. 25) 그림 5)에서 아더 대통령의 수행원으로는 국무총리 프레링하이젠(Secretary Frelinghuysen), 차관 테이비스(Assistant Secretary Davis), 해군 메이슨 중위(Lieut. T. B. M. Mason), 포커 소위(Ensign Foulk), 비서 필립스(Private Secretary Phillips)가 참석하였다. 26)

23) The New York Times, op. cit., Approaching the President they again made a salaam, this time according to the fashion of Oriental Princes - that is, bowing to one side instead of directly to the President.

24) Ibid., Arising, they were presented to the President, Secretary Frelinghuysen introducing them in the order of their rank. President Arthur bowed and shook hands with each.


26) The New York Times, op. cit., About him (President Arthur-연구자) were grouped Secretary Frelinghuysen, Assistant Secretary Davis, Lieut. T. B. M. Mason and Ensign Foulk, of the United States Navy, and Private Secretary Phillips. No others were admitted during the reception.
〈그림 6〉보병사 일행의 관복착용 사진1

〈그림 7〉보병사 일행의 관복착용 사진2

〈그림 6〉과 〈그림 7〉은 현재 위스콘신대학 디지털 포토 아카이브에 공개되어 있는 사진이다. 이 사진들은 위스콘신 밀워키 도서관(University of Wisconsin-Milwaukee Libraries)에서 1895년 2월 26일에 포크 소원로부터 구입한 것이다. 27) 〈그림 6〉에서 앞줄에 앉아 있는 홍영식, 민영익, 서광범은 사모에 단령을 착용하고 있고, 뒷줄의 수행원들은 걸고 착수의 전복을 착용한 모습으로 활영되었다. 〈그림 7〉은 민영익, 홍영식, 서광범, 로웰이 해군 장교들과 함께 활영한 사진이다. 뒷줄 왼쪽은 메이슨 중위(Lieut. T.W.B. Mason)이고 오른쪽은 포크 소위(Ensign Ceo, C. Foulik)로 28) 이들은 보병사의 격전례가 이루어지는 장소에 함께 있었던 인물들이다. 이들은 더블 브레스트드(double breasted) 군복에 숨이 있는 전장을 부착한 전장을 부착한 전장을 부착한 싸움을 착용하고 있다. 여기에 조선 보병사의 외국인 고문인 로웰은 모닝코트를 착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진은 공식적인 행사가 전후하하여 착용된 것으로 생각된다. 이 사진들은 흑백이기 때문에 단령의 색을 확인할 수 있지만 민영익은 생합홍배, 홍영식과 서광범은 단합홍배를 부착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종사관 서광범의 경우는 기사에서 사모와 단령을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묘사되어 있지만 사진에서는 사모와 단


28) Ibid.
령 차림이므로 기사와 사진의 복식이 일치하지 않는다.

당시 신문 기사에는 현지인들이 보병사를 비러보는 시선과 함께 보병사절 중 서양복과 민영익이 가진 미국 복식에 대한 의견도 다음과 같이 실려 있었다.

서양복은 이 나라에서 다음과 같이 관찰하였다. "미국의 여인들은 모두 우리가 지금까지 본 사람들보다 훨씬 아름다웠다. 대부분의 여인들은 검은 옷을 가지고 있으며, 푸른색 계도도 많다. 남성이 따뜻해지면 화색의 옷도 흔하다. 일부는 앞머리가 보이도록 뒤로 비스듬히 젖힌 모자나 보닛을 착용하고 있는 반면, 다른 일부는 머리 위에 독바로 착용하고 있는데 앞쪽의 스타일이 보기 좋았어 보인다." 29)

왕족 민영익은 미국식 의복관습의 유용성에 감복하였으나 그의 의복이 훨씬 더 아름답다고 여겼다. 30)

서양복은 미국 여성복의 색이 검은색을 주로 하는데 푸른색 계도도 많고 남성에 따라 화색의 옷도 흔히 착용하는 것에 주의를 기울였고, 모자를 쓰는 방법 중 앞머리가 보이도록 뒤로 비스듬히 젖힌 스타일이 더 좋다고 하였다. 미국 여성의 복식에 흥미를 보인 서양복과는 달리 민영익은 미국 복식이 실용적인 것에는 동의하였지만 조선의 복식이 더 아름답다고 말함으로써 조선 복식에 대한 자부심을 표출하였다. 한편, 이들은 현지에서 양복을 구입하였다. 당시 민영익이 양복을 샀던 양복점에서 이들이 구입한 양복 품목과 가격에 대해 출국한 후 신문에 난 광고가 다음과 같이 남아 있다.

조선의 사절이 지난달 방문한 동안 그들은 우리 상점을 베트로폴리스의 관광지 중 하나로 여러 방문하였다. 그들은 많은 구매를 하였으며 공사가 적절 하단의 완전한 한 별의 예복을 선택하였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 신사분들이 이미 우리 상점을 떠났으므로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발표하는 것이다. 아래의 글자는 우리 상점에서 실제 세팅한 것이다. 31)

29) 「Cedar Rapids Evening Gazette」 1883,11,2. "The Corean Jenkins"
31) 「The New York Times」 1883,12,27. 광고.
이돌이 양복을 구입한 양복점은 Rogers, Peet & Co.로, 양복, 모자, 신발을 취급하였고 메트로폴리탄 호텔의 반대편에 있었다. 이 상점에서 민영익은 한자와 한글로 직접 서명을 해 주었는데 양복점에서는 광고에서 〈그림 8〉과 같이 이 서명을 함께 공개하였다.

다음의 〈표 1〉은 민영익이 이 양복점에서 구입한 양복의 품목과 가격을 정리한 것이다. 표를 살펴보면 민영익은 고급 캐시미어 오버코트 한 벌, 군용 캐시미어 오버코트 한 벌, 푸른색 프록코트 한 벌과 함께 서스펜더 두 개를 구입하였다. 당시 서양 바지는 지퍼가 아닌 단추로 여겼으며 허리 사이즈를 조절하기 위한 버클이 바지의 뒤편에 부착되어 있었고, 풀하네이지 꼭두둑 서스펜더를 함께 착용하였기 때문에 서스펜더는 양복을 착용하는데 있어서 필수품이었다.

민영익은 양복들과 함께 양복 속에 입는 흰색 드레스 셔츠 12벌, 런던 카라 8개, 런던 캐프스 12개를 구입하였는데 카라와 캐프스는 교체용으로 보인다. 또한 속옷을 여러 종류로 구입하였다. 고급 양모 속옷 한 벌, 흰색 메리노 속옷 셔츠 8벌, 흰색 메리노 드로워즈(속옷 바지) 8벌, 흰색 진 드로워즈 2벌, 고급 메리노 호즈 바지 12벌, 고급 면직 호즈 바지 3벌, 흰색 면 호즈 바지 12벌을 속옷용으로 사고, 갈색색 더미 모자 2개와 구두 두 쌍을 샀다. 전체적으로 지불한 가격은 118달러 65센트였다.

이상 제시한 자료를 통해 지금까지 구전으로만 전해지던 보병사 일행의 양복 구입을32) 구체적인 품목과 함께 확인할 수 있다. 민영익이 이 시기에 구입한 양복들을 직접 착용하였을 가능성도 있지만 그 보다는 구입품을 조선으로 입수하여 양복의 구성품과 착용방식을 조선 정부에 구체적으로 소개하는 역할을 한 것에서 더욱 큰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
32) 김진식, 1990 《한국양복100년사》, 미리내, 56면.
<table>
<thead>
<tr>
<th>항목</th>
<th>가격</th>
</tr>
</thead>
<tbody>
<tr>
<td>One fancy cassimere overcoat</td>
<td>$12.00</td>
</tr>
<tr>
<td>One army cassimere overcoat</td>
<td>$8.00</td>
</tr>
<tr>
<td>One blue diagonal frock suit</td>
<td>$32.00</td>
</tr>
<tr>
<td>Twelve white dress shirts</td>
<td>$13.00</td>
</tr>
<tr>
<td>Eighteen linen collars</td>
<td>$3.75</td>
</tr>
<tr>
<td>Twelve linen cuffs</td>
<td>$3.00</td>
</tr>
<tr>
<td>Two pairs suspenders</td>
<td>$1.00</td>
</tr>
<tr>
<td>One suit of fancy wool underwear</td>
<td>$5.30</td>
</tr>
<tr>
<td>Eight white merino undershirts</td>
<td>$7.00</td>
</tr>
<tr>
<td>Eight white merino drawers</td>
<td>$1.00</td>
</tr>
<tr>
<td>Two pair white Jean drawers</td>
<td>$1.00</td>
</tr>
<tr>
<td>Twelve pair fancy merino hose</td>
<td>$3.60</td>
</tr>
<tr>
<td>Three pair fancy cotton hose</td>
<td>$0.75</td>
</tr>
<tr>
<td>Twelve pair white cotton hose</td>
<td>$3.00</td>
</tr>
<tr>
<td>Two black felt derby hats</td>
<td>$5.25</td>
</tr>
<tr>
<td>Two pair shoes</td>
<td>$12.00</td>
</tr>
<tr>
<td>Total</td>
<td>$118.65</td>
</tr>
</tbody>
</table>

그림 9은 사전엽서로 인쇄된 것이다. 정확한 환영연대가 확인되지는 않지만 앞줄 가운데에 앉아 있는 인물은 미국에 파견되었던 사절(ambassador)로 소개하고 있다. 앞줄 왼쪽에 앉아 있는 인물 중 왼쪽에서 두 번째인 인물이 민영익인데 그의 옷차림을 살펴보면 머리에는 검고 푸른 자고리에 착수포와 전복을 착용하였지만 자고리와 포사에 서양식 조끼와 같은 옷을 착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조끼의 첫 번째 단추를 채우고 왼쪽 가슴 위쪽의 포켓에 흰색 물건을 넣어 둔 것이 확인된다. 방에는 목이 간 서양식 부츠를

33) 개인소장, 연구자 촬영.
신고 있으며 오른손에 검은색 우산을 들고 있다. 사전에서 민영익은 저고리와 포 사이에 착용한 조끼를 이양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포의 여밈을 풀어 좌우로 헤쳐 둔 것으로 생각된다. 자세히 살펴보면 조끼의 왼쪽 주머니 쪽에 시계줄도 보인다. 이와 같이 1880년대의 비교적 이른 시기에 미국을 다녀온 경험이로 조선의 복식을 착용한 바탕에 조끼, 시계, 부츠, 우산과 같은 일부 품목의 서양 복식이 흔용되어 있는, 말하자면 '朝洋混用 차림'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사전에 등장한 인물들은 것을 쓰고 착수의에 전복을 착용하고 있다. 이는 후술하는 갑신의제개혁에서 사복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를 바탕으로 이 사전의 촬영시기의 민영익이 보병사 업무를 마치고 조선으로 귀국한 후 의제개혁 직후로 추정된다.

3. 갑신의제개혁(1884년) 이후 갑오의제개혁(1894년)
이전 외교관 복식

1) 갑신의제개혁(1884년)의 내용

앞서 살펴본 수신사, 보병사의 경우는 서양식 외교의례를 이해하지 못하여 이에 맞는 복식을 대비하지 못한 상황에서 파견되었다. 그러나 서양화된 일본과 미국 현지에서 새로운 의례를 경험한 외교관들이 귀국한 후 조선에서는 최초의 의제개혁이 이루어졌다. 갑신의제개혁으로 명명된 1884년 은 5월의 의제개혁 중 처음 번째는 관복에 대한 개혁으로 관복의 색을 흑단령으로만 쓰도록 하였다.

관복을 흑단령으로만 쓰는 것은 바로 후화로서 매우 간편하다. 그러니, 장사관의 형태인 紅團領은 「大典通編」과 「原典」의 예에 따라 입지 말고, 지금부터 조정의 모든 관원들은 항상 흑단령을 입되, 대소의 차례에 連見할 때와 궁내의 공사가 있을 때에는 흑 билет 달아서 文武官 品階의 구분으로 삼을 것이다. 그리고 단령의 제도를 襲領窄袖로 하는 것도 역시 inoc의 制模을 따르라.

34)『高宗實錄』권21 고종21년 음5월 24일 丁卯.
두 번째는 사복에 대한 개혁으로, 조선 후기의 사복 중에서 소매가 넓은 도포, 직령, 창의, 중의와 같은 옷을 변통하여 오로지 체복과 싸웃을 착용하고 그 위에 여래를 대어 간편하게 하도록 하였다.

의복 제도에 변통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변통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예를 들면 흉복, 祭服, 喪服과 같은 옷은 모두 옛 성형이 남겨놓은 제도인 만큼 이것은 변통할 수 없는 것이고, 수시로 편리하게 만들어 입는 私服과 같은 것은 변통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의복 중에서 道袍, 直領, 廓衣, 中衣와 같은 것은 점점으로 입고 소매가 넓어서 일하는데 불편하고 古制에 비하여 보아도 너무 차이가 있다. 지금부터 약간 변통시켜서 오직 체복과 싸웃을 입고 여래를 대어 간편하게 하는 방향으로 나가도록 규정을 세워야 할 것이니 해당 뿐에서 점점씩 대여보내도록 할 것이 다. 35)

이러한 복식제도 개혁 내용에 대해 황현은 『매천야록』에서 제안자를 방영효로, 함께 협의를 본 사람을 민영익으로 서술하고 있다. 36) 수신사로 일본에 다녀 왔던 방영효와 일본, 미국, 유럽을 다녀온 민영익은 해외에서의 복식 경험을 바탕으로 조선의 복식 개혁을 주도한 것이다. 37) 위의 인물들을 통해 갑신의제개혁은 시키인 홍단령을 훼단령으로 변경하고 사복의 소매쪽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진행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대례복, 소례복 제계의 도입이나 양복의 도입으로 바로 이어지지 않고 조선식 예법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색상을 검은색으로 통일하고 소매쪽을 줄이는 것으로 수정함으로써 외관상 지나치게 눈에 띄는 것을 피하고자 한 방법이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그런데 의제개혁 이전에 파견된 수신사에 비해서 보병사의 경우 사복으로 착수의에 전복을 착용한 것을 보아 여행상의 편리함 위해 창수의 포가 아닌 착수의 포를 선택한 것으로 생각할 수도

---

35)『高宗實錄』 권21 고종21년 음5월 25일 戊辰.
36) 6월, 복식제도를 개정하여 공문나 貨賃을 막론하고 모두 신식으로 할 것을 반포했다. 이 때에 방영효 등이 서양제도를 흉포한 나머지 미친 듯이 좋아하여 임금에게 복식제도를 바꿀 것을 권하며, 한결같이 간편함을 뒷 것이 부강의 급선무라고 주장했다. 민영익 또한 미침 청나라로부터 돌아와 함께 의논하여 협의를 보였다. 황현(임영택 옮김), 2005『(역주) 매천야록』 상, 문학과 지성사, 208쪽.
37) 갑신의제개혁을 추진한 주체에 대해서는 강상규, 2010「1884년 '의제(衣制) 개혁'에 대한 정치적 독해」『한국 근·현대 정치와 일본』, 도서출판 한국, 51-86쪽을 참고할 수 있다.
있지만 이미 보병사 파견 시 사복에 대해 어느 정도의 논의가 이루어진 결과였을 가능성이도 있다.

2) 미국공사 박정앙의 복식

김신의 귀하에 이르는 외교관의 복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는 미국에 파견된 초대 주미공사 박정앙 일행에 대한 기사가 있다. 조선은 1887년 8월 18일(음 6월 29일)에 조선의 무선을 박정앙을 주미 전권공사로 임명하였다. 38) 박정앙 공사 일행은 1887년 11월 4일 제자봉을 출발하여 일본과 하와이를 경유한 다음 12월 10일에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하였다. 39) 당시 이들의 복식에 대한 다음과 같은 묘사와 삼화가 신문에 게재된 바 있다.

조선식의 옷은 중국풍과 달랐으며, 누구도 실수로라도 구별하지 못할 수 없었다. 중국인들이 대개 두 가지 색으로 이루어진 긴 기관에 짧은 절옷을 걸친 것에 비해 조선인들은 여명부터 발까지 오는 긴 단령을 입었다. 그들의 모자는 문명화된 꼭 뚜 통풍과 보다 화려하였다. 그 모자는 둥근 모양이 막막하고 검정색이었으나, 삼층으로 된 원기둥 형태에 동글고 모란 모자가 뿌리에 있었고. 미국인들의 큰 호기심에도 불구하고 너무 가깝게 보여 보이도록 허리의 가방은 큰 작으므로 인해 몸과 약간 거리를 두고 있었고, 조개결같이나 빈리지는 물체를 부착하였다. 그들 중 몇은 수국 가운데 아름다운 학이 새겨진 칼날이 고운 은박이 등에 부착하고 있다. (중략) 공사관 직원 중 두 명은 조선에서 만든 영어 학교에서 배운 영어를 말하였다. 그들은 서쪽 끝에 점을 구해서 거처를 정하였고 그들을 만나는 곳 어디서나 검은색 옷을 입고 중국인 들처럼 겸손할 것이라고 한다. 40)

위의 기사에서는 박정앙 공사 일행의 복식에 대해 길이가 긴 단령, 검정색 사모, 각대, 흉배 등을 자세히 묘사하고 있다. 검은색 옷을 입는 것에 대해 마지막으로 언급한 것은 조선에서 복식제도 개혁 이후 파견되었기 때문에도 생각된다.

38) 『고정실록』卷24, 고종24년 6월 29일 乙卯.
39) 김완도, 2003 『開化期 韓美 交涉 關係史』, 단국대학교 출판부, 『IV. 朴定陽의 대미 자주외교와 상주공사관 개설(1888)』, 622-627면에 박정앙 공사 일행의 미국 사행 과정이 자세히 서술되어 있다.
40) 『Canadian Messenger』, 1888, 4, 6, “The Korean Embassy”. 
기사가 실린 신문에는 〈그림 10〉과 같은 삼화가 실려 있다. 삼화에는 주미공사 박정양의 대통령 절경직전 장면이 묘사되어 있는데 머리에는 사모를 쓰고 생학홍배가 달린 단령에 각대를 착용한 모습을 서양인의 시각으로 그리고 있다. 이들이 착용한 단령은 김신의제개혁을 따르면 흑단령이다. 〈그림 11〉은 주미공사 시절 박정양이 사모를 쓰고 생학홍배가 부착된 흑단령을 착용하고 활약한 사진이다.

이들의 복식에 대한 비슷한 묘사가 다른 신문에도 등장하는데 그 내용을 읽어 보면 다음과 같다.

그들의 옷을 살펴보자. 그들의 단령은 실크로 되어 있으며 중국의 것과 다르지 않았다. 소매는 길고 드리워져 있었으며 단령의 앞은 각대로 인해 부풀어 있었다. 머리는 원만으로 감쳐져 있었으며 신발은 중국인의 것처럼 보였다. 검은 모자를 쓰고 있었으며 긴 머리를 옻러 머리 위에서 상투를 둘었다. 그 위에 먼저 검은 비단으로 가늘게 짜 맞진을 쓰고 그 위에 옹리버 크롭持って의 것처럼 보이는 모자를 썼는데 평대

41) 백성만·이한우, 2006 『파랑 눈에 비친 하안 조선』, 세남, 340쪽에 의하면 이 삼화는 미국 주간지『하퍼스 위클리』1888년 1월 28일자에 「미국 대통령에게 안내되는 조선 외교 사절단」이라는 제목으로 실린 것이라고 한다. 이후에 Canadian Messenger에 다시 게재된 것으로 생각된다.

42) 韓國學文獻研究所 編, 1984 『朴定陽全集1』, 亞細亞文化社, 화보.
기는 원기둥 형태이고 척이 넓고 딱딱하였다. 이 모자는 머리 쪽에 겉혀 있었으 며, 몇 가지 사이즈가 있었으나 두개골에 비해 너무 작아 보였다. 모든 절혼한 조선 인들은 상투를 편였고, 소년들은 여학생처럼 허리까지 머리를 끝내 내렸다. 조선인들이 온 구례나루가 있었으나 그리 많지 않았고, 수염은 오직 몇수몇과 끝촉한 턱수염만 있는 것 같았다.\(^{43}\)

위의 기사에서 썩어 넓은 소매, 각대를 한 포는 단명에 대한 묘사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 기사는 앞에서 살펴본 다른 기사들과는 달리 중국인들의 복식과 비슷 하다고 한 점, 모자에 대한 묘사에서 사모와 것을 혼동하여 서술한 점에서 조선 사절의 복식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서술된 것으로 보인다. 위의 기사와 함께 실린 삼자인 <그림 12> 역시 당시 서양인의 눈에 비친 조선 사절의 모습을 그린 것이라는 속편에서 의미가 있지만 정확하게 묘사된 것은 아니다. 각 그림 의 아래에 적혀 있는 제목은 왼쪽부터 차례대로 조선인들과 대통령(Coreans and the President), 시내 구경(Taking in the Town), 펜실베니아 거리에서(On Pennsylvania Avenue), 얼음물 마시기(A Drink of ice water)이다. 첫 번째 그 림에서 대통령과 억수를 하고 있는 두 사람을 갈에 착수의, 전복을 착용한 것으로 묘사되었고, 뒤쪽에 그려진 세 명의 복식은 사모를 쓴 것처럼 묘사되어 있어 정확하지는 않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삼사는 사복을 착용하고 거리를 다니는 공사 일행들의 모습이다. 머리에는 갈, 탕긴 등의 편복관을 쓴 모습이 보인다. 갈옷으로는 소매를 좀게 표현한 착수의와 전복을 착용하고 있는데 서양인의 시각에서 포의 등을 숨기라고, 진동 부분은 펑티슬리브로, 수구에는 좀은 커피스를 달아 묘사하고 있는 것이 흥미롭다.

\(^{43}\) 『Decatur Republica』, 1888, 2. 9. “The Corean Ministry”.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갑신의제개혁 이후 미국에 파견된 초대 상주 공사 박정앙 일행은 대통령 점검시 관복으로 흑단령을, 일상적인 생활에서 사복으로 착수의에 전복을 착용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갑신의제개혁의 내용에서 대례복과 소례복의 구분이 없었으므로 미국에서 소례복을 착용하여야 할 때 이런 복식으로 대응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4. 갑오의제개혁(1894년) 이후 대한제국 성립(1897년) 이전 외교관 복식

1) 갑오의제개혁(1894년), 을미의제개혁(1895년)의 내용

조선에서는 1894년과 1895년에 갑오정란의 일환으로 갑오의제개혁과 을미의제개혁이 이루어졌다. 갑오의제개혁의 내용은 조선의 대례복은 흑단령을 쓰고 진궁시의 통상예복은 주의, 담호, 사모, 화로 정하였다. 이후 공사예복 중 담호는 제외하고 진궁시예반 봉衿섯물사를 사용하고 주의는 궁반 모두 흑색을 사용하도록 하였다. 갑오의제개혁은 조선에서 최초로 대례복과 통상예복을 규정한 의제개

44)『高宗實錄』 권32 고종31년 12월 16일 戊午.
혁이지만 이후에 올미의제개혁에서 보다 체계적인 규정으로 발표되었다. 올미의 제개혁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宮內府大臣 朝臣以下 服章式 奉勅 頒布
1. 朝服과 祭服은 그전대로 한다.
1. 大禮服은 黑團領, 紅帽, 品帶, 靴子 차림을 하되 모든 動駕時, 廟祭, 閣安, 禮接時에 착용한다.
1. 小禮服은 黑團領窄袖袍, 紅帽, 束帶, 靴子로 대례복으로도 사용하고 무시 진견시에 이를 입는다.
1. 通常服色은 廣袖한 대로 하여 周衣, 袒服, 絲帶 차림을 하되 내외 관리가 仕進時에 입는 것은 무관하지만 進見時에는 입지 못한다. 사서의 服色도 廣袖한대로 하되 廣袖는 하지 말고, 예복 이외에는 되도록 감약하도록 하라. ④⑤

올미의제개혁은 대례복, 소례복, 통상복식의 일습 구성, 착용일에 대해 자세히 규정함으로써 감오의제개혁보다 정교하게 다듬어져 있다. 대례복은 흑단령, 사모, 품대, 화자를 갖추고 등가시, 청절, 문란, 예접시에 착용하도록 하였으며, 소례복은 흑단령을 착용하되 소매가 좁은 형태로 만들며, 사모, 속대, 화자를 갖추고 대례복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무시 진견시에 착용하도록 하였다. 통상복은 주의, 답호, 사대를 갖추고 일상 업무에서는 착용할 수 있지만 진견시에는 착용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올미의제개혁은 근대 복식 제계인 대례복, 소례복 제도를 형식적으로 갖추고 전통적인 관복을 내용으로 결합한 복식제도라는 측면에서 과도기적 복식제도이지만 ④⑥ 일본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조선식 대례복 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올미의제개혁에 이어서 태양력을 처음으로 공인한 1896년 1월에 조선 정부는 단발령과 양복 착용을 발표하였다. ④⑧

④5) 『고종실록』 권33 고종32년 3월 29일, 去子.
④6) 『고종실록』 권33 고종32년 8월 10일, 戊寅.
④7) 이경미, 2010 「대한제국 1900년(光武4) 문관대례복 제도와 무궁화 문양의 성장성」, 『복식』 60권 3호, 126쪽.
④8) 『일보고』 제204호, 건양원년 1월 4일, 土曜.
2) 일본 주재 대리공사 이업직의 복식 변화

갑오의제개혁과 을미의제개혁이 진행되던 시기에 해외에 파견되어 있던 외교관 중, 李台履의 기록에 그가 일본에 주재할 당시 복식변화에 대한 기사를 찾아 볼 수 있다. 그는 1896년 2월 19일에 일본주재 참찬관으로 파견되었다가 8월 29일 이후 대리 공사직을 수행하였다. 이때 남긴 금은 극문 사행 가사인『遊日錄』와 한문 기행록인『泛槎錄』가 있다.

먼저, 앞에서 살펴본 외교관들과 달리 그는 대례복을 착용하고 일본 친왕의 천장절에 참석하였다.

전략
일본 외계 천장절에 궁안으로 칭했기로 대례복을 갖춰 입고, 시각에 들어가며
중략
황제 이하 여러 백성 연회이 중다받아
그 중에 一青이 短帯 紗帽 品帶로다.
내 모양 내가 보아도, 도리어 웃을 적에
저 사람들 속 마음에 오죽이 비소하랴?
후략

인용문은 천장절에 초대를 받아 대례복을 착용하고 참석한 그가 참석한 사람들 중에 혼자서 전통식 형태인 단령, 사모, 품대를 착용한 것으로 인해 신경이 쏟였던 심경을 기술한 것이다.

한편, 조선에서 단발령이 발표된 직후 그는 일본에서 단발하고 양복을 착용하였는데 그는 일기에서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1월 4일 밤이 깊어진 뒤에 공관으로 돌아오니, 그 사이에 외부에서 전보가 왔는데
이 보니, 15일에 대군께서 머리를 깎았다고 하였다. 비록 어미 그러리라고 생각은

49)『高宗實錄』 권33 고종32년(1895) 2월 19일 午酉.
50) 이업직(최강현 역주), 1999 『조선 외교관이 본 명처시대 일본』, 신성출판사, 81-82면. 이 책은『遊日錄』의 현대역과 원문 영인본이다.
1월 5일 아침 일찍 두 사람의 묘기들과 같이 전문의 지시를 따라 머리를 깔았다. 가슴 이외에 원통합을 풀고 찾아내기도 하였지만, 이러한 때에 남자로 태어난 것이 한 펭 뿐이었다.

1월 7일 설날을 기해 가서 학생들이 일로 이야기를 나누며 담판을 하였다. 처음으로 양복을 입고 문을 나서니 마음속으로 부끄러움이 가득하여 얼굴을 둘지 못했다. 52)

1월 4일의 일기는 단발령이 공표된 사실을 알고 난 다음, 전통적인 복식관에 따라 조선의 의관문물에 대한 자부심으로 단발령을 따라 수도 없고, 자신의 직책으로 인해 따르지 않을 수도 없어서 감을 못 이루는 심경을 표현한 것이다. 다음날인 1월 5일 그는 정부의 명령에 따라 상투를 깔았다. 1월 7일에는 처음으로 양복을 착용하였는데 부끄러워서 얼굴을 둘지 못하였다고 서술하고 있다. 그는 『遊日錄』에서도 단발하는 것에 대해 이적 금수가 되는 것으로 표현하고 본국의 어머님과 처자를 불 면목이 없음을 애유했으며 단발한 모습은 종국, 양복을 처음 입은 모습은 왜놈에 비유하면서 부끄러워서 사람을 대하기 어렵다고 표현하였다. 53)

이때의 전장절 일본식에서는 혼자 전통식 대례복을 착용한 것에 대해 신경을 썼지만, 단발에 양복을 착용하는 개혁에 대해서는 당황하고 수치스러운 감정을 토로하는 입장을 지니고 있었다. 일반적으로 전통적인 문화 속에서 교육 받은 선비의 입장에서 단발과 양복 착용이 갑작스럽고 당당한 변화로 다가왔을 것

51) 이태직(최강현 음감), 2006『명치시대 동경일기』, 서우얼출판사, 146-147쪽. 이 책은 『遊 日録』의 번역본과 원문 영문본이다.
52) 위의 책, 147쪽.
53) 이태직(최강현 역주), 1999, 앞의 책, 92-93쪽.
임을 추정하는 것은 그저 어렵지 않다. 그런데 단발령과 함께 양복 착용이 공인되었지만 여전히 조선의 공식적인 복식은 흑단령이었다.

3) 러시아 파견 특명전권대사 민영환과 미국 주재 공사 이범진의 복식

다음의 사진은 단발령 공포 직후인 1896년에 러시아 황제의 대관식에 축하사절로 파견된 특명전권대사 민영환의 대례복 차림(그림 13)과 통상복 차림(그림 14)을 활영한 것이다. 54) 사진에서 민영환은 대례복으로 사모를 쓰고 소매 넓은 흑단령에 각대를 착용하였고, 통상복으로 간을 쓰고 작수포에 전복을 입고 사대를 띄었다. 민영환이 남긴 사생활기록인 『海天秋帆』에는 사절 일행이 니콜라이 황제를 알현하고 연회에 참석한 일정이 기록되어 있다. 1886년 5월 26일 니콜라이 황제의 대관식에 민영환 일행은 대례복을 착용하고 참석하였지만 모자를 벗지 않으면 예배당에 들어가지 못하였기 때문에 예배당 밖의 누각 위에서 지켜 보기만 하였다. 이는 통통식 대례복 제도를 통해 서양의 복식체계에 맞추었지만 반드시 관모를 갖추어야 하는 전통식의 복식 양식으로 인해 서양에서 하계에 부딪힌 중요한 예로 볼 수 있다. 이튿 후인 5월 28일 황제 알현식에 일행은 대례복을 입고 크렘린 궁으로 들어갔다. 이 날 오후 9시에 황궁의 접객실에는 소래복을 입고 참석하였다. 55)

54) 『그림 13』의 출처는 민영환(조제곤 편역), 2007 『海天秋帆』, 책과 함께, 88면이고, 『그림 14』의 출처는 같은 책 77면이다.
55) 민영환 자음(刊審者未詳), 『海天秋帆』,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38-42면 : 의의 책, 73-78면.
이 시기에 미국에 상주 공사로 주재하고 있었던 이범진의 기록인 『美檢日録』에는 이범진이 착용한 대배복과 소례복의 구체적인 내용이 등장한다. 1896년 10월 14일에 이범진은 참석한 허성호와 함께 미국 대통령의 관소로 가서 국사를 전달했는데 이때 그는 烏紗帽, 鳥角帶, 黑團領, 木釦의 대배복을 착용하였다. 또한 1897년 1월 28일 저녁에 대통령 관저에서 접견할 때 평상복을 착용하라고 하여 소례복에 玉簪子를 쓰고 갔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옷로가 착식된 것을 쓰고 소례복인 착수의 흑단령을 착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소례복으로 흑단령을 착용할 때 것이 아닌 사모를 착용하여야 한다. 『그림 15』를 통해 기록에 남긴 대로 적에 흑단령을 착용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미국에서 이범진이 착용한 소례복은 절충적인 것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범진의 통상복을 착용한 모습은 『그림 16』에서 확인된다. 두 사진에서의 것은 서양의 설록햇(silk hat)으로 보일 정도로 양태가 매우 좋아진 것이 특징적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를 정리해 보면, 을미의제개혁 이후 조선에서는 대배복, 소례복, 통상복의 근대적 복식체계가 도입되었는데 그 내용은 감신의제개혁을 계승한 흑단령 제도였다. 1896년 1월 갑작스러운 단발령의 발표로 인해 단발과 양

---
56) 『美檢日録』1896년 10월 14일. 『美検日録』은 李範鎬의 저술로, 현재 廣川鶯의 手記本이 단국대학교 박물관에 소장중이다. 그 해에는 김صح익, 『美検日録』, 2012 「단국대 소장 연민문고 〈동장귀중본〉 해제집」(단국대 소장 연민문고 〈동장귀중본〉 해제사업단 위음), 문예원, 918-925면이고, 김현정, 2010 「추미공사 李範鎬의 미국 여정과 활동」, 「歴史學報」, 205, 191-219면에서 자세히 잘못된 바 있다.
57) 『美檢日録』1896년 11월 28일.
58) 박현순 외, 앞의 책, 6면.
59) 프랑스 국립국문 연구원, 고려대학교 박물관 편, 2006 「서울의 추억」, 도서출판 삼도, 203면.
복이 공인되자 당시 일본에 파견되어 있던 대리공사 이태직이 국가의 명령에 따라 단발하고 양복을 착용한 신정을 낭셨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착용하는 복식은 대레복으로 광수의 흑단령, 소레복으로 착수의 흑단령이었으므로 러시아에 사절로 파견된 민영환과 미국에 상주한 이범진은 이를 따랐다. 현지에서 전통식 대레복 제도를 적용할에 있어 민영환은 러시아 황제 대관식장에 입장하지 못하는 한계를 경험하였고, 이범진은 소레복으로 흑단령에 양태가 매우 좁은 것을 착용하여 절충한 것으로 생각된다.

5. 끝말말

1876년 조선이 서양을 향해 개항한 시기 서양 제국들이 중심이 되었던 외교 상황에서 통용되는 복식체계는 각국의 국왕이나 대통령을 알현하여 국사를 전달할 때에는 대레복을 착용하고, 각종 연회에서는 소레복을 착용하는 양상을 띠고 있었다. 개항 직후 조선에서는 새로운 방식의 외교 상황에서 착용한 복식 체계에 대해 대비되어 있지 않았지만 점차 국제관계에 적합한 복식 체계를 갖추기 위해 개혁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개항이후 대한제국이 성립하기 전까지 조선에서 해외로 파견된 외교관들이 현지의 공식적인 의례에 참가할 때와 일상적인 생활에서 착용한 복식을 조선의 복식제도 개혁 과정과 함께 고찰함으로써 조선정부의 복식제도 개혁 과정이 당시 서양이 주도하는 외교 의례에 맞추어 가는 과정이었음을 밝히고자 하였다. 연구를 위해 살펴본 자료는 이 시기 해외에 파견된 외교관들이 남긴 기록으로, 본격적인 외교관 복식으로는 사절로 파견되었던 수신사, 보병사의 복식, 상주 외교관으로 파견되었던 미국공사 박정양, 이범진, 일본주재 대리공사 이태직, 러시아 파견 특명전권대사 민영환의 자료이다. 여기에 남아 있는 사진을 분석하여 실험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개항 이후 대한제국 성립 이전 외교관의 복식은 다음의 세 단계로 정리할 수 있다.

첫 번째는 개항 이후 1884년 갑신의제개혁이 이루어지기 이전 일본에 수신사 를, 미국에 보병사를 파견하는 시기로, 조선후기 국왕 알현 예를 그대로 따라 일
본 전황을 알현할 때는 홍단령을, 미국 대통령을 알현할 때는 홍배가 달린 단령을 착용하였고, 임상적인 생활에서는 조선의 편복포를 그대로 착용하였다. 보병사절은 미국 대통령의 집전에서 전통식 예법을 행한 뒤 약수를 하였다. 특명전권공사 민영익은 오버코트, 프록코트, 서초, 양복바지, 모자, 구두 등을 구입하였고 이후 조양혼용의 복식을 착용한 것으로 보인다. 해외에서 외교관들이 새로운 복식 경험을 한 이후 조선에서는 최초로 민간의복제가 진행되었다. 민간복제에서는 편복을 흔한복으로, 사복을 착수의로 개혁하였는데 대례복, 소례복 제게까지 병아들이지는 않고 조선식 예법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색상이나 소매폭과 같은 부분을 수정함으로써 외관상 지나치게 눈에 띄는 것을 피하고자 한 것으로 추측된다.

두 번째는 1884년 갑신의복개혁 이후 1894년 갑오의복개혁이 이루어지기 전까지이다. 갑신의복개혁은 편복으로 흔한복을, 사복으로 착수의에 전복을 착용하도록 하였다. 이는 1888년 미국에 파견되었던 초대 공사 박정암의 현지 복식을 통해 확인되었다. 박정암은 대통령 집전시 흔한복을 착용하고 약수를 하였다. 또한 당시 신문에 게재된 사례를 통해 생활에 있어서는 것을 쓰고 착수의, 전복을 착용하고 거리를 홀보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소례복을 착용하여야 할 상황에는 어떤 복식으로 대응하였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

세 번째는 1894년 갑오의복개혁 이후 대한제국 성립 전까지이다. 갑오의복개혁을 제대로한 옴미의복개혁 이후부터는 대례복으로 광수의 흔한복을, 소례복으로 착수의 흔한복을 착용하였다. 일본에서 단발령을 따르게 되는 대리공사 이태직은 처음으로 양복을 착용하기도 하였지만, 러시아에 사절로 파견된 민영환과 미국에 상주한 공사 이범진의 예를 볼 때 공식적으로는 전통식 대례복과 소례복을 착용한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민영환의 경우 전통식 대례복을 착용하고 황제를 알현하는 것은 가능하였지만 황제 대관식에는 참석할 수 없었던 한계를 경험하였고, 이범진의 경우 소례복으로 흔한복에 양태가 좋은 것을 착용하여 절충적인 모습을 보였다.

본 연구를 통해 개항 이후 해외에 파견된 외교관의 복식은 초기에는 조선의 전통적인 방식을 그대로 고수했지만 점차 서양의 외교의례에 적용할 수 있도록
대례복, 소례복 체계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고, 변화된 제도는 해외에 파견되는 외교관에게 즉각적으로 적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형태적인 면에서 1890년대까지 전통식을 유지하였기 때문에 주목받고 기사화되었으며 공식적인 의례에 있어서도 민영환의 경우와 같이 현지의 한계에 부딪혀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서구식 대례복이 전면적으로 도입되기 전까지 외교관들이 현지에서 전통식 대례복 착용을 고수하였다는 것은 이 시기 복식사 서술에서 의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주제어 : 대한제국, 대례복, 소례복, 통상복, 외교관, 수신사, 보병사

투고일(2013. 7. 1), 심사시작일(2013. 7. 2), 심사완료일(2013. 8. 30)
<Abstract>

A Study on the Costume of Diplomats between the port-opening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Korean Empire

Lee, Kyung-mee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contemplating the costume of the diplomats between the port-opening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Korean Empire. Western costume system included wearing daeryebok (大禮服, court-costume) when delivering credentials to rulers with soryebok (小禮服, formal dress) in other banquets. Not having its proper costume with diplomatic manner after the port-opening, Joseon gradually reformed its system. The costume of the diplomats at this time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The first stage was the period before the Gabshin-reformation 甲申衣制改革 of 1884. The mission to Japan wore hongdanryung (紅團領) at audiences with rulers with pyeonbok (便服) in daily lives, while the Korean embassy to America seemed to wear plum-colored.

The second one was the period after the Gabshin-reformation, when the diplomats wore heukdanryung (黑團領) as public, and chaksueui (窄袖衣) with jeonbok (戰服) as private.

The last stage refers to the period after the Gaboh-reformation 甲午衣制改革 of 1894 followed by the Eulmi-reformation 乙未衣制改革 of 1895. The diplomats wore wide-sleeve heukdanryung with somo (紗領) as daeryebok, narrow-sleeve heukdanryung with somo as soryebok, and chaksueui with jeonbok as tongsangbok (通常服, business suit) with examples of Min, Young-Hwan 閔泳煥 and Lee Bum-Jin 李範晉.

Joseon maintained traditional-style daeryebok system until the establishment of the Korean Empire before they arranged the western-style court costume in April 1900. This

*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Clothing Industry, Hankyong National University.
system can be evaluated in that Joseon reacted to the period characterized by western dominance, with traditional systems merged into modern forms.

**Key Words**: the Korean Empire(大韓帝國), daeryebok(大禮服), soryebok(小禮服), tongsangbok(通常服) diplomats, the mission to Japan, the Korean Embassy to America